

고용보험 가입, 21년 만에 최저 구인은 줄고, 구직자 28% 급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2월 신규구인 6% ↓, 구직자 28% ↑
제조·건설업 등 내국인 취업 감소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봤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

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저가 파우더 등 인체 안전성 기준 '충족'

소비자연맹, 14개 제품 안전성 평가
시중에 판매되는 반값 이하의 저가 파우더·팩트·에어쿠션 제품도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험평가 결과 14개 제품 모두 중금속, 미생물이 불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고, 내용량도 표시량에 적합했다. 제품에 동봉된 퍼프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알러지성 염료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파우더 5개 제품은 '탈크' 성분이 함유돼 3세 미만 아동과 여성의 생식기 부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크는 흡수성이 뛰어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돼 다양하게 사용되나, 유럽연합에서는 흡입 가능성

이 우려돼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탈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석면이 함유된 탈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의 경우 '탈크 등 5불검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표시한데 대해 소비자연맹은 '탈크가 첨가된 타 제품이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어 해당 업체에 광고 내용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항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플라스틱계열이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지 공급할 것"이라며 "모두 불검출됐고 특별히 알러지성 염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기능상 차이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새 슬로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비전 선포

한국폴리텍대학이 '푸른 미래를 열다, 국가대표 기술교육'이란 새로운 대학 슬로건을 10일 공개했다.

새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대한민국 대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세계 최고 공공직업교육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디자인 콘셉트는 중앙에 솟아오르는 푸른 선을 통해 기술교육으로 열어갈 밝은 미래를 강조하고 상단에 떠오른 나무 형상은 폴리텍대에서 이뤄나갈 성장과 결실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같이 공개한 서브 슬로건은 '기술로 준비된 내·일'로 기술교육을 통해 국민이 '내일(Tomorrow)'과 '나의 일(Job)'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 고

용 기회를 만들겠다는 중의적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슬로건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선도해 국민과 미래를 잇는 일자리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7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교육대학으로서 300만명이 넘는 핵심 산업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이번 슬로건을 통해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에서 푸른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직업기술교육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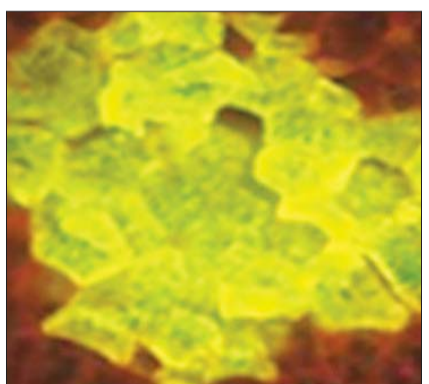
농산 부산물로 친환경 산업 키운다

농진청,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지원
연구개발·기술 보급에 박차 계획

농촌진흥청이 국유특허권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나선다. 현장의 기술 수요를 수렴해,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0일 친환경 소재 개발업체 루츠랩을 방문해, 기술 이전 성과를 들여다보고 농산 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술 실용화는 농진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유특허권 기술을 발명하면 업체나 개인이 특허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한 조건 범위 안에서 누구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시권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배 석세포. /농진청

특히 최근엔 천연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배 부산물인 석세포를 활용한 가공소재와 천연연육제, 소화제 등으로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 상용화하고 있다. 권 청장은 "버려지는 농업 자원을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업체가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배 석세포가 피부 각

질이나 치태(플라그) 제거 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소재로서의 우수성을 입증바 있다. 루츠랩은 농진청이 개발한 '효율을 증가시킨 석세포 분리방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고 농진원의 공정 고도화 지원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루츠랩은 착즙박, 유과, 낙과 등 배 부산물을 대량 수집·건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고순도 석세포 추출과 석세포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분말화 기술 공정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미세플라스틱 대체 원료를 대량생산하고 세안제 상품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감귤박으로 만든 사료 제조 기술도 개발했다. 김명원 루츠랩 대표는 "농산 부산물로 화학물질을 대신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예산 지원 확대

환경부, 예산 편성·집행 설명회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

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